

변화는 자연스럽게 수용된다

반야를 배우는 사람은 얻을 수 있는 그 어떤 법도 없는 줄 알기에, 삼승(三乘)에는 뜻이 끊어지고 오직 하나의 진실만 남는다. 증득할 것이 없는데도, “나는 능히 증득하여 얻었다”고 한다면 모두 증상만(增上慢)을 내는 사람이다.

수불 스님의 전심법요 선행 <15>



범어사 주지

방편으로 깨달음을 드러내는 것은 그때의 일이지만, 반짝하는 경계를 보고 도 깨쳤다고 한다면 다 증상만을 내는 것이다. 공부인은 서푼어치도 안 되는 것에 머물지 말고, 그 어떤 경계라도 모두 내려놓아야 한다. 지금까지 흘러왔듯이 앞으로도 시간을 보내다 보면, 변화는 자연스럽게 수용된다. 그러므로 괜히 생각을 불러일으켜, 변화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 특히 조그마한 이익을 얻은 것을 가지고, 나와 상대의 인연을 살피지도 않은 채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위험하다. 인연에 따라 뿐이지, 억지로 하려고 들어서는 안 된다. 이 점은 종교, 특히 선(禪)공부하는 사람한테는 금물이다. 마을의 일은 하려는 마음을 내고, 노력한 끝에 이루는 것이다. 하지만 마음공부는 흔적 없이 마음 써서 어떤 귀신도 흠쳐 볼 수 없게 자신을 감출 수 있어야, 마침내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큰 힘이 생긴다. 큰 믿음을 바탕으로 그저 흘러가도록 내버려두어 세월 따라 변화한 것을 수용하면, 다른 사람과 이익을 나누려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이익을 줄 수 있게 된다. 자기 분수는 볼 줄 모르고 넘쳐려고 드는 것은 만심에 불과하다. 아상·인상·중생상·수자상을 내려놓지 못한 허망한 기운이 그 속에 있는 것이다.

괜히 생각을 불러 일으켜 변화를 만들어서는 안된다

흔적이 없이 마음을 써서 어떤 귀신도 흠쳐 볼 수 없게 자신을 감출 수 있어야 변화 수용할 수 있는 힘 생겨 자연스럽게 이익을 나눈다

인연없는 사람들은 부처님 말씀을 들어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귀한 기회에 동참 못한다

알아듣지 못하더라도 물려서지 않으면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르게 이익을 함께 할 것이다

《법화경》 회상에서 웃을 떨치고 떠나간 사람들이 모두 이러한 무리들이다.

법화 영산회상에서 부처님 말씀을 소화한 사람들은 그 가르침에 희열을 느끼면서 동참하였지만, 그렇지 못한 성문 제자들은 일어서 나갔다. 인연 없는 사람들은 부처님 말씀을 들어도 귀에 들어오지 않고 재미가 없다보니, 그런 귀한 기회를 만나고서도 동참하지 못한 것이다. 불법을 소화할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들은 그 회상에 머물러 볼지견(佛知見)을 눈 열지 못한 입장에서 소화가 안 된다. 따라서 부처님께서 가르, 말이라 말할 필요도 없이 본인 스스로가 떠난 것이다. 하지만 아직 알아듣지 못하더라도 신심이 견고하여 물려서지 않고 함께 시간 보낸다면,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르게 이익을 함께 할 것이다.

그러므로 부처님께서는 “내가 보리(無上正等覺)에 있어서 실로 얻었다 할 것이 없다”고 하셨으니, 그저 묵묵히 계합할 따름이다.

‘본래열반’이다, ‘본래무심’이다, ‘평상심이 도다’는 말들을 소화했다는 뜻이다. 이런 입장을 바르게 이해하고 눈뜬 것을 ‘중도 정견’을 눈뚫었다고 하는 것이다. 중도는 돈오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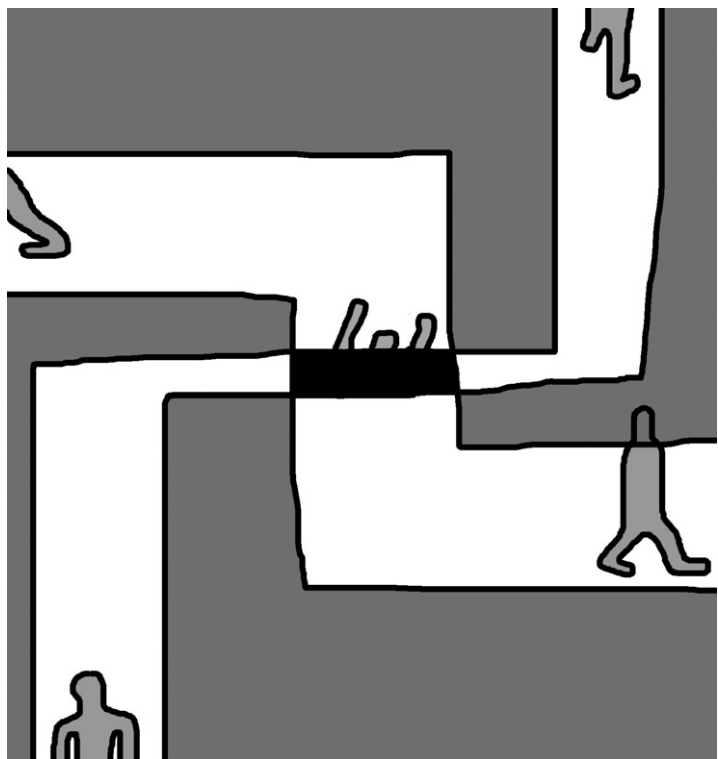


그림 · 박구원

흔적을 통해서 이해하는 것이다.

범부 중생들은 임종 시에 다만 오온(五蘊)이 공하고 사대(四大)는 무아임을 본다. 그러나 진심은 모양이 없어서(無相), 가지도 없고 오기도 않는다. 레어났다고 해서 성품이 오는 것이 아니고, 죽었다고 해서 성품이 가는 것이 아니다. 담연(湛然)하고 원적(圓寂)해서 마음과 경계가 한결같다(一如). 다만 이와 같이 적하에 깨닫다면, 삼세에 얽매이지 않고 세간을 뛰어넘은 사람이 될 것이다.

세간을 뛰어넘은 사람이라고 하지만, 불성(佛性)을 절견(徹見)해야 다시는 속지도, 속이지도 않게 된다.

간절히 바라건대 달팔만큼이라도 나아가는 방향이 있어서는 안 된다.

완벽함 그 자체가기 때문에 방소(方所)가 없다.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한다’는 것은 미혹한 사람들을 위해 집짓 하는 말이다. 실로 비출 것도 없고 비취지는 것도 없는 줄 아는 사람, 그저 흔적 없이 정진하며 스스로 비취질 수 있는 입장을 취한다.

만일 모든 부처님께서 맞아해주시는 것 같은 가지가지 산기만 모습을 보게 될지라도, 또한 따라가는 마음이 없어야 한다. 만약 가지가지 나뉠 모양들이 나타날지라도, 역시 두려운 마음이 없어야 한다. 다만 스스로 마음을 잊고 법계와 같아지면 바로 자재(自在)를 얻은 것이니, 이것이 곧 요긴한 대목이다.”

여기서 ‘자재’란 신통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천안(天眼)의 어리석은 수준에서 말하는 것이 신통이다. 본래 다 구축되어 있는 것이

데, 생각을 일으켜 그런 업을 익히면 욕심이 생긴다. 상대가 나를 높이고 거기에 우쭐해지는 것은 제바달다의 경우에 잘 나타나 있다. 제바달다가 마치 부처님을 넘어서는 것처럼 신통을 부리니, 아직 깊은 뜻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것에 휘둘러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속아 넘어가기 쉽다. 이것은 스스로도 속고 남도 속이는 일이다.

법(法)은 무생(無生) 10월 8일 대사께서는 배후에게 말씀하셨다.

배후가 황벽스님을 한 달에 한 번 정도 찾아간 것 같다. 한 나라의 상공임에도 그만큼 신심이 있다 보니, 찾아가서 법을 묻고 가르침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그 덕분에 황벽스님의 가르침이 기록으로 남아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참고가 되고 있다.

화성(化城)이란 이승(二乘) 및 십지(十地)·등각(等覺)·묘각(妙覺)을 말한 것이다. 이것은 모두 중생을 이끌어 주기 위한 방편으로 세운 가르침이므로, 화성이라 한다.

성문·연각·벽지불·십지보살·등각·묘각 등이 전부 법신의 화현으로, 대각을 이룬 완벽한 입장이 아니면 열반이 아니라는 말이다.

또한 ‘보배로운 장소(寶所)’란 진심(真心), 본불(本佛)이며, 자기 성품의 보배를 말한다. 이 보배는 사랑 분별에 속하지 않으니, 그 자리에는 아무 것도 세울 수 없다.

법은 만들어지거나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본래 완벽하기 때문에, 무엇을 따로 세우는 순간 어지러워진다.

김호성 교수의 에세이 경구 65



세간과 출세간이 둘이라 하지만 세간의 본성이 공한 것이 곧 출세간이다. <유마경>

세간과 출세간의 교차 인간의 숙명은 세간(=세상) 속에서 살아가도록 되어 있다. 세간 속에서 태어나고, 세간 속에서 죽어간다. 그런 까닭에 세간이라는 ‘씨름판’을 벗어날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것도,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소수의 예외자가 있다. 그 ‘씨름판 밖’을 사유하는 사람이 나타난다. 그는 세간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떤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는지를 통찰한다. 그러면서 그러한 문제해결의 길을 세간 밖에서 모색해 간다.

출세간으로 들어가는 길은 출가(出家)의 길이라 할 수 있다. 역설적이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리워하는 길이다. 세간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일기기에, 그 세간을 벗어나는 꿈을 꾸지 않을 수 없어서이다. 벗어날 꿈을 꾸는 것, 그것 역시 인간의 숙명이라 운명이다. 주말이나 휴가 때마다 사람들은 여행을 떠난다. 그 여행이라는 것 자체가 일종의 ‘출가’이다. ‘의사(擬似)출가’라 할 수 있다. 완벽한 출가가 불가능하기에 차선책으로 선택한 것이 여행인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인간의 역사는 이 ‘세간’과 ‘출세간’의 두 가지 지향(志向)이 교차하는 역사라 할 수 있다. 세간 밖을 꿈꿀 때 출세간을 강조하는 가르침이 등장할 수밖에 없게 된다. 세간을 살아가는 인간들의 고통이나 고뇌는 세간을 벗어나므로써만 해결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이렇게 형성된 출가주의(=출세간주의)의 특징은 물론 세간의 포기인데, 그것은 노동의 포기나 봉사의 포기를 함축하는 것이기도 하다. 세간의 고통을 쉽게 벗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출가주의가 갖는 효과는 강력하다. 그렇다고 해서 출가주의에 약점이 없는 것도 아니다. ‘왜 세간에 있으면서 출세간에 있는 것처럼 살 수는 없는가?’ 이런 강력한 반문에 봉착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세간에 있으면서도 출세간에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 그것은 재가(在家)주의라 할 수 있다. 노동을 떠나서만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노동을 하면서도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이다. 이 가능성을 실험해 보는 것이 재가주의의 도전이다.

재가주의의 고통 부처님 역시 출가주의의 전범이라 할 수 있다. 부처님 당시에는 아직 본격적인

재가주의의 문(門)이 열리지 못하였다. “과연 우리 불교사에서 재가주의가 꽃을 피운 시대가 있었던 것일까?”라는 질문의 제기 역시 가능하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승불교를 일으킨 것은 출가자가 아니라 재가자들이었다는 학설이 힘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근래 이 ‘대승불교의 재가자기 원설’이 무너지면서, 역시 출가자들이 대승불교운동 역시 일으켰던 것으로 굳어져 가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대승불교와 재가주의가 무관한 것은 아니다. 세간의 포기, 노동의 포기, 그리고 봉사의 포기를 그 핵심으로 하는 출가주의의 이념과 대승불교의 이념 사이에는 다른 차원이 놓여 있다. 오히려 대승불교는 재가주의를 그 핵심적인 철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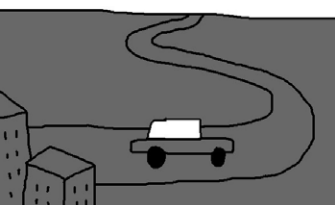


그림 · 박구원

으로 삼는다. 왜냐하면 대승불교는 공(空) 사상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서, “세간과 출세간은 둘이다. 즉 서로 다른 차원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세간과 출세간 모두를 실체화할 위험이 있다. 실체화와 공은 서로 모순된다. 한편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 세간과 출세간은 둘이 아니다. 왜냐하면 세간에서 살아가면서도 세간적인 어떤 특성(예컨대 물질적 탐욕)으로부터 떠나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그렇게 살 수 있다면, 세간에 사는 것이 곧바로 출세간에 사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논리를 우리는 재가주의의 이념이라 말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이념의 고향은 바로 공사상을 기반으로 해서 성립한 <유마경>이다. 그러므로 대승불교가 대승불교일 수 있으려면, 결코 <유마경>을 외면할 수 없다. 그런 이념을 보다 극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유마경>은 거사(재가자)를 주인공으로 삼았던 것이다.

동국대 불교학부 교수

수정기공 특강 안내

신지식인 대한민국 정부인정 660 2012년 신지식인 최우수상 수상



- * 교 재 : 75,000원 특가 68,000원
- * 정기간의시작 : 매일 첫째 일요일 오후 1시 30분 ~ 6시
- * 장 소 : 수원시 성균관대학역 주변
- * 모집인원 : 매회 8명 이내
- * 연락처 : 010-3463-7806
- * 홈페이지 : soojung99.pe.kr

수정기공 창시자 김문기 원장 직강 온라인번호 : 농협 207176-51-204175

KBS 과학카페



박현숙 원장 출연 (2010. 2. 6)

이강욱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역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져서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똥똥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속편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기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어도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월빙 02)523-0708 박현숙 원장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월빙」을 치세요.

설법·화술 설법제일 부루나존자가 되자

- 좋은 성격, 좋은 음성, 좋은 표정 만들기
- 설법, 강의, 인사말, 축사 등 이론 및 실습
- 인간관계 및 설법에 필요충분 조건인 스피치 기법
- 종합반 : 00명
- 소수정예 특별반 : 0명
- 개인지도 (직접 상담 후 결정)
- 자 격 : 승려, 법사(포교사), 불교포교와 설법 화술에 관심있으신 분
- 기 간 : 2개월 과정 수시접수
- 강 의 : 종합반 -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소수정예 특별반, 개인지도 - 상담 후 결정
- 장 소 : 본 연수원 강의실
- 특기사항 : 비디오 촬영 - 모니터링(진도식 교육이 아니고 훈련식 교육임)

[우불 김철회 박사]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이사장 / 한국인성개발원 회장 40년 노하우를 지닌 우불 김철회 박사 직접 지도

- 회장 김철회 박사
- 원장 처 명(선광)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과정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자격증 취득(심리상담)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중요무형문화재 제 50호) 영산재 이수자

한국 설법 연수원

서울시 종로구 종로3가 16번지 고영빌딩 7층 / 1,3,5호선 종로3가역 1번 출구 연수원 : 02)747-1567 / 010-7248-1567